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올림

전자우편 : sharps@hanmail.net 홈페이지 https://sharps.or.kr/

수신	제 언론사
제목	[보도자료] 반올림, CGFED, IPEN, 삼성 내부 문서를 담은 보고서(189 쪽) 발표 삼성 내부 자료로 확인된 베트남 공장의 화학물질 부실 관리와 환경오염 실태
발신일	2024년 6월 10일 (월)
문의	010-9401-1370(반올림 이상수) , 02-3496-5067(반올림 사무실)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삼성 전자제품이 부실한 화학물질 관리 속에서 베트남 환경을 오염시키며 생산되고 있음이 삼성 내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삼성과 그 협력업체들이 베트남 노동자와 주변 지역 사회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 담겼습니다.

전자제품은 화학물질 집약적인 제조 공정을 통해 생산되지만 그 실상은 대중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공익 제보자(내부 고발자)가 내부 문서와 사진을 통하여 삼성의 환경오염, 노동자 건강 및 안전 문제, 부실한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유해공정의 외주화, 이중 잣대, 유엔 인권 원칙 위반을 드러낸 것은 전 세계 전자산업 차원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 만큼 드문 일입니다.

이 공익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한국), 젠더가족환경개발연구센터(CGFED, 베트남), 국제오염물질추방네트워크(IPEN)는 오늘 그간 발표한 적 없는 상세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공익 제보자는 삼성에서 환경안전보건 관리자로 41년간 근무했으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베트남의 공장과 협력업체에 대한 내부 조사를 수행하여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오염 실태를 기록했습니다.

"삼성과 그 협력업체들은 베트남의 환경과 노동자들을 심하게 무시해왔다. 삼성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며 베트남이 ILO 협약 87호 비준을 막기 위한 로비가 아니라 이를 지지함으로써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지원해야 한다." (팜티민항(Pham Thi Minh Hang) CGFED 활동가)

베트남에서 가전제품과 전 세계 휴대폰의 약 절반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베트남 전자 산업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자 산업 노동자](#) 대부분은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여성들입니다. 2017 년 삼성 휴대폰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을 조사한 결과, 실신, 어지러움, 유산, 높은 소음 수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의 문제가 알려졌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각한 대기 및 수질 오염:** 삼성 베트남 공장들에서는 독성 폐수 처리 시설 미비, 대기 오염 제어 설계 및 운영 부실로 인해 수년간 오염이 발생함. 삼성이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 년에 가장 유독한 공정들을 협력업체에 아웃소싱한 결과, 지금도 다른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오염이 계속되고 있음.

▲**노동자들의 유해화학물질 노출:** 베트남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 공장으로 유명한 삼성전자 박닌 공장은 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여러 구역에 국소배기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음.

▲**해외 사업장과 국내 사업장에 대한 이중 잣대:** 삼성은 한국에서는 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이전 등록(PRTR) 시스템을 통해 수백 가지 물질을 공개적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화학물질 배출을 공개적으로 보고하지 않음.

▲**경영진의 무관심:** 공익 제보자는 2012 년 삼성 베트남 박닌 공장의 심각한 대기 및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해 자세히 보고했지만, 본사 고위 관리자들은 침묵으로 일관함.

▲**내부 은폐:** 삼성 본사의 글로벌 환경안전센터는 박닌 공장에서 광범위한 사내 규정 위반을 발견했으면서도 일상 점검 보고서에서는 대기 오염 관리와 폐수 처리 시설에 최고 점수를 부여함. 이 모순은 삼성의 자체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를 무시하면서까지 공장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글로벌 환경안전센터의 역할임을 시사함.

▲**외부 은폐:** 삼성은 자체 조사 결과를 숨기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활용함. 예를 들어, 삼성은 모든 사업장 폐수를 사내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후에만 배출한다고 대외적으로 밝혔지만, 박닌 공장에서는 수년 간 폐수 처리 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폐수를 환경에 직접 버렸음. 삼성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는 협력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외부 감사결과만 언급되어 있지만, 4 년 동안 삼성의 자체 조사 결과 베트남 협력업체에서 약 13,000 건의 규정 위반이 확인된 사실은 숨겼음.

▲**협력업체 관리 부실:** 2023 년 삼성 베트남 협력업체에서 37 명의 노동자가 메탄올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함. 삼성이 자사 공장 및 협력업체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단 2 종이며, 부분적으로나마 규제하고 있는 물질은 메탄올 등 23 종에 불과함. 삼성은 협력업체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평가를 협력업체 자가 보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이 금지된 화학물질의 사용을 숨겨 좋은 점수를 받으면 더 많은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화학물질 관리를 한층 더 악화시킴.

▲**알권리 훼손:** 베트남에서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나 규제 기관의 조사 결과 정보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음. 삼성의 내부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자신이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그 위험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한국에서 삼성은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막고자 갖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결국 작업장 내 잠재적 유해위험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사용에 광범위한 제약을 가하는 [산업기술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함.

▲**독립 노동조합 부재:** 베트남에서는 독립적인 노동조합이 불법임. 삼성은 독립 노조가 베트남의 정치적 안정을 해칠 것이라며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ILO 협약](#)의 비준을 반대하는 [로비](#)를 적극적으로 벌임.

삼성전자는 휴대폰과 가전제품 생산으로 인한 오염 비용을 베트남 지역사회, 환경, 노동자에게 외부화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에 대한 권리](#),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누릴 아동의 권리](#),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기본 원칙](#) 등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명시된 다양한 [인권 원칙](#)들이 포함됩니다. 삼성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목록을 공개하고 독립적인 건강 연구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고 독성 화학물질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개발해야 합니다.

"삼성의 화려한 대외 이미지 뒤에는 자체 환경안전보건 점검에서 드러난 부정적인 결과를 무시하고 낙관적인 내용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로 이를 은폐해온 공해 기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공익 제보자들이 나서주기를 바라지만, 기업 운영의 진실을 밝히는 데 이분들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때문에라도 기업에 대한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상수 반올림 상임활동가)

"삼성의 내부 조사에 따르면 삼성 경영진은 공공 인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정책 입안자, 규제 당국, 건강 옹호자들은 한국 전자 산업의 공해, 직업병, 사망의 암울한 역사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또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 디간지(Joe DiGangi) 박사, IPEN 특별 고문)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활과 노동 조건에 대해 이야기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습니다. 삼성이 공장 운영과 노동 조건에 대해 자신있다면, 노동자들이 언론 및 시민단체와 노동 조건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베트남 정부와 함께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팜티민항(Pham Thi Minh Hang) CGFED 활동가)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반도체 및 전자 산업 노동자들의 직업병 산재 인정을 지원하고, 노동환경을 모니터링 및 조사하며, 알권리 등 안전보건 정책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3년에 설립된 **젠더가족환경개발연구센터(CGFED)**는 여성 개발과 젠더 평등을 목표로 사회 과학 연구와 참여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베트남 최초의 공익 NGO 중 하나인 CGFED는 베트남 시민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젊은 NGO 커뮤니티의 기반 구축과 발전에 기여해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제오염물질추방네트워크(IPEN)는 독성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제거하기 위해 100 개국 이상에서 활동하는 공익 NGO 들의 국제 네트워크입니다.

<끝>